

제130회

12월 10일

- ... 본회가 주최한 제 ... ○
- ... 130회 발명교실이 지 ... ○
- ... 난 12월 10일 발명장 ... ○
- ... 려관 연구실에서 개 ... ○
- ... 최되었다. 매월 둘째 ... ○
- ... 토요일 오후 1시 30 ... ○
- ... 분에 개최되는 발명 ... ○
- ... 교실은 이달에도 1백 ... ○
- ... 여명이 참석하여 성 ... ○
- ... 황을 이루었다. 이날 ... ○
- ... 발명교실에서는 경동 ... ○



승강가변식 가구 발명가

경동시스템 이은옥 대표

발명은 작은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번쯤 불편하다고 느끼면서도 개선해 보지는 의욕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문명의 혜택은 없었을 것입니다.

고층 건물에서 생활하는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다.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쭉 올라 갔다가 썩썩거리며 잘 내려온다.

이 엘리베이터를 방안에 설치하여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여성 발명가가 있다.

방안의 엘리베이터 언뜻 생각하기엔 상상이 잘 되지 않

지만 20대의 당찬 용기가 만들어낸 걸작품이다.

경동시스템 대표 이은옥. 아무리 불편한 것이라도 그녀의 눈과 손에 포착이 되면 그냥 넘어 가는데 없다. 불편함은 그녀 스스로가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가 발명을 하게된 계기는 그리 넓지 않는 집에 살면서 부터 시작 된다. 방안에 놓여 있는 TV며, 책들이며 화장품 등등 모든게 어지럽게만 보였고 부피만 많이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런것들이 없다면 또한 매우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녀 인지라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였다.

이은옥씨는 집안의 물건들

을 필요할때 사용하되 사용하지 않을때 잠시 치워두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였다. 먼저 발명가 이씨는 시중에 나와있는 볼락이 식이나 절첩식 가구를 조사해 보았다. 나름대로 편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접어 두려면 가구위에 두었던 물건을 또 치워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날, 발명가 이씨는 차를 마시다 창밖을 내다 보았다. 따뜻한 햇살이었지만 눈에 들어오는 햇살에 눈이 부셔 브라인더를 내렸다.

‘바로 이거다.’

발명가 이씨는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 하였다. 방안에 있는 가구나 물건들도 창문에 설치하는 브라인더 처럼 위로

발명교실

성공사례 등 발표

- ... 시스템 이은옥 사장 ...○
- ... 의 발명성공 사례 발 ...○
- ... 표와 김영화 변리사 ...○
- ... 의 산업재산권 제도 ...○
- ... 해설에 이어 새생각 ...○
- ... 회 강신목 회장의 발 ...○
- ... 명의 발상기법에 대 ...○
- ... 한 강의가 있었다. ...○
- ... 발명가의 성공사례를 ...○
- ... 간추려 소개한다. ...○
- ... <이두성記> ...○



치워 놓았다가 필요할때 내린다면 그만큼 공간의 활용이 쉬워 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었다.

우선 가구를 높이 올리려면 가구의 다리를 없애야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벽면에 레일을 설치하였다. 두번째는 위로 끌어 올릴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만들것이나 하는 것이었다. 손으로 당겨서 올려 보았으나 너무 힘이 많이 들었다. 대안을 모색하던중 모터를 사용해 보았으나 가정에서 그것도 실내에 장치한다는게 많은 거부감을 가져 왔다. 더구나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소형 모터를 구한다는게 쉽지 않은 않았다.

발명가 이씨는 쉬지 않고

발로 뛰어 다니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끝내는 시제품도 만들어 상품화 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방안의 엘리베이터는 한 집념의 여성발명가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다.

벽면에 레일을 설치하여 버튼 하나로 가구를 천정까지 올리고 보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 그만큼 집의 평수도 커졌다. 참으로 마음이 흐뭇한 순간이었다. '발명은 작은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번쯤은 불편하다고 느끼면 서도 개선해 보자는 의욕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문명의 혜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손과 발로 뛰어 다니며 만든 제품이 여러사람에게 알려지고 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발명이라는 묘한 성취감이 무엇보다도 컸다는게 그녀의 말이다.

'저 역시 좁은 집의 불편함을 타하며 좀더 넓은 집으로 갈 생각만 했다면 우물안개구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승강 가변식 가구를 만들어 '94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발명가 이은옥.

하나의 만족에 그치지 않고 더 좋은 발명으로 결실을 맺겠다는 그녀의 다짐 속에 한국 여성의 우수성이 넘쳐 흘렀다.